



Botanist 보타니스트

설계 Alberto Caiola www.albertocaiola.com
 위치 Shanghai, China
 사진 Dirk Weiblen

알베르토 카이올라(Alberto Caiola)가 디자인한 Botanist는 실내 공간에 감각을 부여하기 위해서 식물을 바탕으로 하는 칵테일 메뉴를 개발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공상과학적인 도시이자 과거 프랑스로게지가 있던 상하이의 울창한 중심에 위치한 Botanist는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의 결합을 통해 기술이 식물의 힘을 이용하는 지속가능성을 만족시키는 미래의 지평을 열었다.

건강하고 자연적인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늘어나는 관심에 맞춘 반응을 보이는 계절 허브, 향신료, 꽃, 열매, 채소 등은 건강에 좋은 다양한 음료를 위한 기초로서 칵테일 재료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곳에 발을 들인 손님은 추억과 정서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후각을 자극하는 향기로운 식물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면을 채우고 있는 공간으로 안내된다. Botanist가 보여주는 기교의 중심은 바 뒤쪽에 놓인 병들 덕분에 바로 앞 현장에서 모든 것을 섞어 칵테일을 만든다는 것이고, 액체에 담긴 허브와 향신





료의 자연미를 보여주기 위해 아름답게 후광을 받는 그 병들이 매력적인 초점이 된다.

대조가 되는 요소들 간의 긴장감을 탐구하는 출발점이 되는 벽체의 설치물은 식물과 합성수지 시트들이다. 식물들은 보는 사람들의 각도에 따라 추상적이고 흐릿하게, 또는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인다. 대비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모난 인공적인 요소들이 공간 전체에 걸쳐 특징이 되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에워싸는 듯 달아 맨 천장인데, 이는 화학구조에서 영감을 얻어 복잡하게 떠 있는 미로 같은 형태로 만들어졌다. 불규칙적이면서 기하학적인 프레임들은 초현대적인 미를 연출하는 짙은 색의 금속구조, 가느다란 조명, 반사 패널, 철망이 한데 어울려서 첨단기술을 함축하고 있는 인공적인 숲을 연상시킨다.

조각적인 설치물은 바 한쪽에서는 테이블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병들을 놓는 선반이 되면서 공간 전체를 감싸고 있다. 짙은 색의 거울은 벽이 '사라지는' 듯한 깊이의 착시를 일으킨다.

소파와 의자들은 공간에 활기를 더하는 짙은 블루컬러를 입고

